

생생 자치

광주시-전남도 간부회의 들여다보니

박준영 “잘 노는 사람 일도 잘한다, 빠짐 없이 휴가가라”  
강운태 “대형마트가 물가상승 원인... 복구 감사 잘한 일”

◇광주=강운태 광주시장은 25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 중 물가가 6번째로 높다는 자료가 공개됐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 7개 대도시 소비자단체 간 협약을 맺고 주요 물가 정보를 교환, 단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것”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최근 발표된 시장경제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지역 내 전통시장의 물가는 싼 편인데, 대형 마트가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입점 때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대형 마트가 광주 물가를 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번 광주시 감사관실의 복구 대형 마트 감사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에서는 8월 아트페어를 비롯해 9월, 디자인비엔날레, ACE Fair, 10월 UEA광주 정상회의, 국제공연예술제, 세계김치문화축제 등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린다”면서 “깨끗한 도시, 질서를 잘 지키고, 주정차도 잘 지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와 5개구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여성단체에서 모니터링 분야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청과 구청이 정리 정돈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과 관련 강 시장은 “하반기 인사는 2가지 원칙에 따라 공

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하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라는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동감,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업어주고 싶은 공무원’을 중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박준영 전남지사가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25일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실·국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권고했다. 박 지사는 “어느 누구도 빠지지 말고 가라”면서 “(간부 공무원들은) 연가까지 합쳐서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승인해 줘라”고 지시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적극적으로 휴가를 활용토록 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충분한 휴식으로 업무 능력을 높이는 취지다. 박 지사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면서 “재충전도 업무에 도움이 되고 휴가 기간 여러 곳을 둘러보야 식견도 넓어진다”고 적극적인 휴가 사용을 권유했다. 일하다 보면 휴가 쓸 생각조차 못했던 만큼 공식사회 내부에서는 휴가 권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재충전할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금강산 문제 실무회담 29일 열자”

정부, 북측에 제의... 대북 밀가루 지원 승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2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 단체들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8개 만에 승인했다. 통일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과 관련, “오늘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담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당국 간 협의는 작년 2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실무회담은 금강산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천주교가 신청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밀

가루 지원과 이를 위한 남북 신청을 이날 오전 승인했다. 민화협은 이에 따라 26일 밀가루 300t 등을 사리원시 탁아소, 유치원, 소아병원에, 천주교는 28일 밀가루 100t 등을 황해북도 인민병원 등에 지원할 예정으로, 정부가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한 것은 작년 11월20일 대한감리회의 대북 밀가루 지원 36t 지원 승인 이후 8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중국 남동부 저장(浙江)성 원저우(温州)에서 발생한 고속철도 사고현장에서 24일 관계당국이 고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파손된 객차를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 고속열차 추돌 사망자 43명으로

중국 고속열차의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동부 저장(浙江)성 원저우(温州)시 왕위(雙龍)에서 전날 밤 8시34분(현지시간) 발생한 고속열차 추돌 추락사고의 사망자 수가 외국인 2명을 포함해 43명으로 증가했으며 부상자도 211명으로 1명 추가됐다고 전했다. 구조팀은 이날 고가 밑으로 추락해 부서진 동차(動車) D301호 1~4번째 객차 안에서 8구의 시신을 찾아냈으며 중상자가 적지 않고 수색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희생자 수가 더욱 늘

박재완 기재부장관 F1 지원 약속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F1(포틀러인) 경기대회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잇따라 열리는 국제 행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박흥석 회장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3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특별 강연차 참석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F1 경기대회 예산(200억여원)과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박 장관이 특별강연에 앞서 가진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F1 경기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U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규모소매업 상품 판매대금 상품권·물품 지급 못한다”

‘유통업체 횡포 방지법’ 8월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25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당정은 또 26일 오후에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대형 유통업체 횡포 방지와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의원이 지난 6월11일 대표 발의한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40일 이내에 납

품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쯤해서 안 되며, 상품 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대규모소매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매정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빅 3’ 유통업체가 백화점과 할인점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심하다”면서 “판매대금 감액이나 반쯤 때 입증 책임을 대형 유통업체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용기자 jpark@kwangju.co.kr

“국내 휴가, 지역경제 살린다”

MB, 좋은 여행지 여수 금오도 등 거론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0차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은 국민이 허투루씩만 국내여행을 늘리면 지역 경제에 2조원 정도가 더 흘러가고 일자리가 4만여개나 생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 좋은 여행지가 무척 많아졌다”면서 여수 금오도와 전남 임실 치즈마을, 강원 인제 냇감마을, 경북 망양 해수욕장, 경남 남해 해바리마을, 충남 태안 벗가리마을, 충북 보은 법주사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관광지들은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실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올 여름엔 우리 공직자들도 가족과 함께 꼭 휴가를 가도록 권유하고 싶다”며 “이미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모두 휴가를 다녀오게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길리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정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